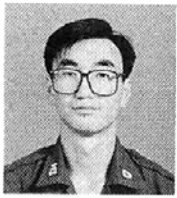


군승 위상강화 병영포교 '열쇠'

이동배법사 군포교 관련 첫 석사논문



이동배법사

군승문제등 군포교의 올바른 정책수립 과제를 논한 논문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표돼 주목을 끌고 있다.

이동배 군법사(9사단 총무대)는 96년도 동국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인 '군포교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에서 군포교 활성화는 군에 대한 이해, 군승의 위상강화, 종단의 재정지원, 군포교에 대한 이념정립 등 이 네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만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중에서도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꼽은 것은 '군승의 위상문제'. 군포교와

이법사는 또 군승에 대해 '교화승(教化僧)'-전통적으로 포교와 불교사업에 전념하는 교역자-으로서의 지위부여를 위한 중헌법상의 제정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최소한 중앙포교사로서의 지위부여를 위한 종단의 검토, 수용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단 재정지원·지휘체계 확립 전역후 포교사 임용 제도화를

이와 함께 이법사는 군승제도가 시행된지 30년이 지난 지금 군승단 차원의 군포교는 실질적으로 명확한 목표설정과 정책에 의한 활동이 전개되지 못하고 있다며 군포교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대책이 하루빨리 수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승에 대한 종단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방안으로써



군승의 위상강화는 군포교 활성화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히고 있다(사진은 논산훈련소 훈련병 수계식 장면).

현·전역을 포함하는 관리 및 지휘체계가 우선 확립되어야 하며, 이에 종단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법사는 또 군승대표기구 설립을 통해 제안을 확보하는 재정문제 해결방안도 제시했다. 종단차원에서 군법사 가운데 특히 환경이 열악한 부대를 선정해 차량 및 일정한 활동비를 지원하

는 방법과 군법사 건립기금 배정, 특별 포교기금의 군포교 지원 방안이 그것이다.

이법에도 군포교 이념정립을 위한 군과 불교와의 뚜렷한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보다깊은 연구와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명우 기자

한국 사찰의 주련

권영한

법주사

천왕문

帝釋天 釋迦明 (제석천왕해감형)
四州人事一念知 (사주인사일념지)

제석천의 애절한 사랑 찬미

哀愁衆生如赤子 (애민중생여적자)
是我今奉敬禮 (是我今奉敬禮)
(시교아금중경례)

제석천왕의 지혜는 밝고 밝아서
은 세상의 일을 한 생각으로 다 아시네
중생을 친자식처럼 애처롭게 생각하시어
그래서 나는 이렇게 공경하고 예를 올립니다

제석은 수미산 꼭대기 도리천의 임금이다. 제석궁에 주석하며 4천

왕과 32천을 통솔하면서 불법과 불법에 귀하는 중생을 보호하며 아수라의 마귀군을 정벌한다는 하늘임금이 바로 제석왕이다. 제석천은 제석이 사는 도리천을 말하므로 제석천왕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많은 사찰의 천왕문 주련들이 4천왕의 위엄 등을 노래한 반면 법주사 천왕문 주련에는 4천왕은 물론 32천을 다스린다는 제석천왕을 찬탄하고 있어 흥미롭다. 앞의 제석천왕이 하는 일을 소개했듯 제석천왕은 불법에 귀한 중생을 보호해 준다는데서 찬탄의 마음이 출발되고 있다.

모든 중생을 친 자식처럼 애처롭게 생각한다는 것, 그것은 곧 대지대비(大慈大悲)의 발현이다. 기쁨으로 사랑하는 것보다 애처로움과 슬픔으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더 절절한 사랑인가를 우리는 알고 있다. 깨달음의 저 건너편에서 불법에 의지해 생명을 이어가는 중생의 모습에 큰 사랑의 마음을 가진 제석천왕에게는 애처로울 것이 없다. 그리고 그 애처로움은 곧 사랑의 마음을 일으켜 중생들을 안온케 하는 것이니 공경하고 예를 올리지 않을 수 없지 않겠는가.

(안동 경인중 교사)

海東佛敎大學

-통신 수강생 모집-

- 법사(法師) 과정
 - 고졸 학력 이상의 불자로서 신심이 돈독하고 불교 포교에 뜻이 있는 자로서 20세 이상의 남녀. 통신교재와 테이프를 공부하며 본인의 능력과 노력 여하에 따라 단기간 내에 과정을 수료하여 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 삼장법사(三藏法師) 과정
 - 대중 학력 이상의 불자, 불교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있고 불교 포교에 뜻이 있는 자, 포교원 또는 알가를 설립·운영 하실 분으로 불교지도자로서 자질이 손색이 없는 25세 이상의 남녀 불자. 통신교재와 테이프를 공부하며 본인의 실력과 노력에 따라 단기간 내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 국제 포교사(國際 布敎師) 과정
 - 승속·성별·연령·학력 제한 없이 해외포교를 원하시는 분이거나 해외거주 동포로서 불심이 돈독한 분이면 가능.
 - 과목: 영어(필수)·해당지역언어·불교 전반
 - 시간: 매주 화·수·목 오전 10시~12시, 오후 5시~7시
 - 통신도 가능

*본 대학에서는 87년부터 95년까지 우리나라의 권위 있는 불교 관계 교수님과 석학 승려들의 강의 내용을 전부 녹음하여 보관하고 있는 바, 통신강의의 수업료는 받기 때문에 똑같은 교육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통신 과정 수업은 시간·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는 현대인들이 가장 편리한 방법이며, 지금은 타계 하신거나 은퇴하신 원로 교수님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본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법사나 삼장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화·서신 주시면 자세한 안내서·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수시 입학 가능※
문의처: 110-320 서울시 중로구 낙원동 110 경원빌딩 2층
해동불교대학 교무처 전화: 741-0495-6 / 팩스: 763-4603

海東佛敎大學

학 장 장 이 두
대학원장 김 지 권

보살의 善意志 미래 정신혁명 '원동력'

김용운교수 '수학자의 문명관' 통해 주장

환경파괴로 인해 현대 인류역사가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정신혁명과 미래의 희망에 대한 담보는 '보살에 대한 믿음'이며, 이 보살의 역사관이 민족발전을 위한 대중사대의 역사관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김용운교수(한양대 수학과 명예교수·본지 논설위원)는 최근 한국불교환경교육원이 발행한 <현대과학사상과 환경문제>에서 '수학자의 문명관'이란 글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교수는 '보살의 선(善)의지'가 미래사회의 역사적 움직이는데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았다.

김교수가 말하는 '보살'이란 자기자신을 살리고 싶은 자신의 의지인 동시에 민족 단위로 볼 때는 민족의 무의식 속에 있는 선의지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민족의 원형이 곧 보살이며, 이 원형 가운데서도 가장 중심적인 것이 선의지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환경을 파괴하는 것은 내 생명을 부수는 것이요, 내 보살을 죽이는 행위로 볼 수 있으며, 기적이란 것은 역시 보살의 선의지가 작용하고 있기에 가능하다는 것. 비로 이 생명력을 설명해 주는 보살의 선의지는 카오스 이론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다는 것이 김교수의 설명이다. 불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일부만을 가지고 전체를 알 수 있다는 일즉다 다즉일(一即多 多即一)이 바로 카오스 사상이라는 것.

김교수는 이 카오스 사상중 오는 서울의 종로거리에서 나온 내비가 일으키는 작은 바람 때문에 내일 뉴욕에 폭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나비효과'를 예로 들어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할 보살의 역사관을 설명했다.

즉, 개개인의 행동 하나하나가 나비의 날개처럼 약한 것 같지만 이것이 내일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원동력이며, 이 원동력이 개인의 보살, 민족의 보살이 지니고 있는 선의지와 다를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역사관을 모두 부정한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역사관은 보살의 역사관이라고 주장했다.

국배판 크기에 5백58쪽인 이 책은 광복 5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지난 4년동안 열린 학술대회 발표논문 22편과 이에 대한 학자들의 논평 및 종합토론을 담고 있다. (0417)60-0411

海東佛敎大學 儀式敎育院

學長 張 二 斗
院長 鄭 大 隱

제17기 佛敎儀式(범음, 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 기본과정: 사물(목탁, 태징, 요령, 범고) 다루는 법, 도량석, 뒷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식식 등
 - 중급과정: 상주권공, 대령관공,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 작업반: 요점바라, 천수바라, 도량계, 다계 작법(나비춤) 등
- 모집인원: 00명
- 교육기간: 3개월(각 과정)
- 구비서류: 본대학 소정원서 사진 1매
- 원서접수: 1996년 1월 8일 ~ 2월 15일
- 개강일시: 1996년 2월 15일 오후 5시 정각

*본원은 초중과 교육과정으로 수료 후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제도, 포교원(사찰)청인의 지도와 편의 제공
*초심자라도 어렵게 불교의 전통의식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함

서울특별시 중로구 낙원동 110번지
탐골공원 뒤 허리우드 극장에서 중도방향
구산빌딩 앞 경원빌딩 2층
전화: 741-0495-6 / 팩스: 763-4603

말들이 재밌게 행동하는데...

세 말을 둔 가정주부입니다. 큰말은 직장엘 나가고 둘째·셋째는 고등학교입니다. 큰애가 외박이 잦은 등 생활이 문란한 편인데 동생들까지도 얹어가고 있습니다. 입에 침이 마르도록 일러도 그때 뿐입니다. 아이들 생각하면 이제 화가 치솟아 오릅니다. 어찌해야 좋지요.

(이은주·서울 노원구)

늘 말씀드립니다만 육신을 움직이게 하는 건 마음입니다. 아이들이 부모 말을 잘 안듣고 또 외박이 잦아들어서 육신을 얹어 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입에 침이 마르도록 애갈에도 들질 않거나 그야말로 우이독적인 성인애 보살님의 말을 귀찮게 흘려듣는 까닭이 무엇인지 곰곰 생각해 보았습니까? 우선 그것부터 관해 보세요. 왜 그토록 애질하게 애갈했는지도 막무가내인가. 주인공은 그 까닭을 알 것이 아닌가 하고 깊이 관해 보세요. 어쩌면 보살님의 결과를 바라는 조급한 마음이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데 장애가 되었는데도 모릅니다.

에 동국대 불교학과를 진학하려는 꿈을 지니고 있습니다. 제가 희망했던 인문계는 정원 미달이라서 제멋대로 원서를 쓰지 못하게 한 스럽습니다. 장차 동국대로 갈수 있을런지요. (변근희·경기도 이천군 미장면)

물이 흐르는 것을 보세요. 가다가 구덩이를 만나면 채우고 바위나 언덕을 만나면 끼고 돌아 흐르지요? 참나를 찾는 공부도 그와 같아서 무엇보다도 물러서지 않는 꾸준한 정진의 발걸음이 중요합니다. 해야 스님이 되고 싶다면 더욱이나 정진을 해야지요?

인문계를 가려다가 본의 아니게 실업계로 가게되었다니 안타깝겠지만 거기에 가르침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처지나 현실적인 방법이 아니라 학생의 원입니다. 꼭 스님이 되겠다, 가르침을 배우겠다 하는 원을 세웠으면 믿음을 가져봐요. 반드시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을.

부처님께서는 육신을 버리라고 하셨지만 이 공부를 하겠다는 그 육신은 여너 육신과 달리 원이요 원력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한 물러서지 않는 정진이 따를 것이고 정진하는 한 그 원력을 누가 막을 수

있었어. 현실적인 방편에 마음 그대로 지 말고 '주인공 너만이 할 수 있다'고 굳게 믿으세요. 암, 되고말고요.

장재인은 왜 태어나는지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입니다. 출생한 부모님 밑에서도 장애가 많이 태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인연으로 장애가 태어나는 것일까요? 또 산모들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가르침 바랍니다. (정계자·경남 창원시)

우리가 수억겁을 거쳐 오늘에 이르도록 열리고 열린 인연들을 어떻게 말로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인연의 씨앗이란 결코 씨도 없고 한치의 오차도 없다는 사실만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뿌린 대로 거두는 이치와 문명은 다릅니다. 운명이라고 하면 딱 끊어진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 인연이기전에 들어 아닌 도리, 공생 공식 공제 공실의 도리를 믿고서 생활 속에서 실천할 때 진정한 인연이 되는 것입니다. 주인공 되돌려 놓고 관하는 것 또한 인연입니다.

실업계 진학해도 스님될 수 있나요

장차 스님이 되고픈 중3 학생입니다. 지금도 연료하신 스님의 시종을 들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입원서를 쓸 때에 선생님이나 학부고사로 실업계로 가라하시어 그렇게 했습니까만 저는 인문계에 가서 나중

大韓人 安重根 (義士)

독종 안익사의 간수였던 일본 헌병이 존경과 참회로 바라본 인간 안중근. 역사암의 -하스님이 번역하여 국내 처음 공개되는 자료들! 놀라운 장면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다..... 네가 공소를 한다면 그것은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 되고 만다. 네가 나라를 위하여 이에 이르렀을 즉 죽는 것이 영광이나 모자가 이 세상에서는 다시 상봉치 못하겠으니 그 심정을 어떻게 다 말할 수 있나리.....” (안중근 어머니가 상고를 포기하고 죽음을 택하라는 충고)

-본문 중에서-

대한불교경도회 부설
본원불교교육원

142-073 서울시 강북구 수유3동 182-43 정발빌 5층
142-800 서울시 도봉구재계 사자빌 43호

연락처: (053) 852-0803, 藥師庵 一如